동일시 사랑의 눈물의 영성

(사무엘하 18:19~33)

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29.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30.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2.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동일시 사랑의 눈물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동일시 사랑의 눈물의 영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사랑은 저울의 무게로 비교 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마다 인격적 특성이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해보자면 어머니의 자녀의 사랑은 헌신적 사랑이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동일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사랑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은 자녀 앞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기 원치 않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동일시 사랑은 사회적인 활동에 의한 가치창출에 있기 때문에 가치추구와 연관된 사랑입니다. 즉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녀도 갖기를 원합니다. 동일시 사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그 가치를 가졌다면 자녀도 동일하게 갖기 원하고, 그 가치를 갖지 못했다면 자녀만이라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처럼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기 동일시 사랑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헌신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시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둘 때에 본문은 동일시 사랑에서 나오는 슬픔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복음에 연관시켜 얘기하자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동일시 사랑의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주님의 슬픈 눈물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바로 동일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피 우는데, 이 눈물이 바로 주님의 동일시 사랑의 눈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잘난 압살롬의 최후를 알게 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재능을 지녔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모반을 일으켰으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후새의 모략을 따르게 되어 승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열을 정비한 다윗과 정부군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압살롬은 살해당합니다. 모든 출중함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신하들로서는 이제 승전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오늘은 알리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승리했고 반란군은 진압이 되었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을 다윗이 알게 되면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윗에게 승전 소식만을 전했고,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근심할 것을 염려하여 불행한 소식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스 사람을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참으로 지독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진 아버지의 슬픔을 확대해서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슬픔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이 슬픔의 성격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을 아는 자만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슬픔을 모른다면 복음인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의 슬픔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슬픔을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부성애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주석을 읽어봐도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해석은 왕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의 추악함에 대한 나이브한 해석입니다. 왕위 찬탈을 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단순히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부성애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사무엘상 20장의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를 통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32~33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므로 정적인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자 사울 왕이 단창을 들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왕권은 우리는 가져 본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사람의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부성애조차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조와 단종이 삼촌과 조카사이에서 왕위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고, 영조와 사도세자가 왕위를 놓고 부자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도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목숨을 걸고 별 볼일 없는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는데 황제의 자리에 선 네로가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을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 상실에 대한 본성적 부성애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인간의 악함을 나이브하게 본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에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간악함을 보이는데 이가 갈릴 정도로 추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부성애적인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아버지의 동일시 사랑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위는 1차적인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 했으나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조차도 가장 큰 관심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일반적인 역사상의 왕들이 왕위에 집착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들보다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밀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 밀착한 마음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이 밀착되지 않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할례 받은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일개 나부랭이로 보았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주변의 수행자들은 당장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밀착한 마음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보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난길에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에도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은 내 주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저 죽은 개 같은 존재를 당장에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밀착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도 아니고 정적이었던 사울 왕도 아니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한 상태에서 아들 압살롬을 바라보

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일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동일시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것인데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아들이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아버지에게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산에서 중학교 동창 4명이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연예계 활동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암센터 소장이고, 또 한 명은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종합병원의 치과과장이었고 의대의 교수였습니다. 밥을 먹고 오다가 자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센터 친구가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나서 하는 말이 '어쩌면 이놈의 새끼들은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못하느냐'고 하면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도 자녀를 교육할 생각은 안하고 교회 나가서 손들고 노래만 부른다고 한탄을 합니다. 다른 친구도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잘 나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니? 다 공부가 되니까 하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냐면서 자기 공부할 때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동일시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기를 바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아버지들은 자신이 얻은 최고의 가치로서의 서울대를 자식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시 사랑은 자녀의 죽음 앞에서 전부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바람을 가졌을지라도 자녀가 죽음에 처하게 되면 그저 살기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존재인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가치임을 깨달은 아버지라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 동일시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만큼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더욱더 소중함과 찬란함이 빛이 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찬란하면 할수록 아들이 그 하나님을 획득하지 못하고 죽게 될 때 더 슬프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슬픔은 다른 아버지들이 자녀를 잃었을 때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이 동일시 사랑에서 나타나는 눈물의 영성이 앞서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다윗의 눈물이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일시 사랑은 영원 전부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와 밀착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바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바라보시며 동일시 사랑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누리고 깨닫고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우리도 갖기를 바라셔서 당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아버지가 서울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도 서울대 가기를 바라지만 그 가치는 죽음으로 상실될 동일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하나님아버지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기쁨 대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시면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이방여인의 메가톤급 믿음에 대해서도 기뻐하시는 방식이 칭찬으로 끝나고 우리식으로 웃으면서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하늘의 슬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동일시 사랑은 눈물로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지신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았던 다윗의 슬픔도 단순히 아들이 죽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끈질긴 집요함으로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다가 죽었다면 다윗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슬픔의 영성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영성을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에 대한 가치 깨달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로 기뻐하려는 나를 죽음으로 초대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경험하신 최고 중의 최고 가치인 기쁨의 근원되시고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동일시 사랑에 공감하지 못하고 상응하는 응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애는 슬픔으로 지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주님의 슬픔이 오늘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눈물 속에서 예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루신 주님의 슬픔의 영성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동일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